

생명의 꼴로 영혼들을 변화시키다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도시 및 핀란드, 인도 등 해외 곳곳에서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소식.

십자가에 담긴 의미

아무 죄없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살펴본다.

'변개함'을 버리고 싶다면?

육의 대표적인 속성인 '변개함'은 영적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되므로 변개함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팁을 소개한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권능의 역사"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정체성을 회복한 몰도바 따짜이나 플라마잘라 자매와 권능의 기도로 복막염을 치료받은 김명량 집사 간증.

# 만민뉴스

제831호 2018년 3월 2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아프리카를 깨우는 말씀과 권능의 역사!

###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도시에서 열린 집회



세계적인 뉴스 채널 CNN에 보도된 바 있는 '2000 우간다 연합대성회'를 시작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예수교연합성결회 총회장)는 2001년에는 케냐, 2006년에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연합대성회를 인도하여 따르는 표적으로 성결의 복음을 확실히 전파하였다.

이후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담임 정명호 목사(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 사진 1)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55개국에 선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18년 3월에는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유비라 시 소재 엘사다이교회에서 부흥성회와 손수건 집회가 열려 성도들을 감

동과 은혜로 충만케 했다. 이번 집회는 정명호 목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 등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권능의 사역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엘사다이교회 담임 알람베 목사와 일꾼들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일(금)과 3일(토), 정 목사는 '믿음의 분량'(롬 12:3)이라는 제목으로 "성결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이를 것"을 당부했

다. 이어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자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4일(주일) 오전에는 '창조의 섭리'(창 1:1)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에덴

동산에 관해 설교했다(사진 5). 저녁에는 유비라 시내에서 약 2,000명이 모인 가운데 손수건 집회가 진행됐다. 정 목사는 '깊은 곳에 그

물을 던지라'(눅 5:1~9)는 말씀을 전했고, 은혜받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주님을 영접했으며, 손수건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받아 간증하는 광경을 목도하고 엘사다이교회에 출석하겠다는 이들도 있었다(사진 2, 3).

또한 5일(월)과 6일(화)에는 만민국제신학교 강의를 바라카 타운과 유비라 도시에서 각각 진행되었다(사진 4). 정 목사는 '창조의 섭리'(창 1:1)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으며, 참석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선악과를 두신 이유, 그리고 에덴동산의 비밀 등에 관해 듣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에 놀라워했다.

### 핀란드에서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 증거

영적으로 침체된 유럽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현숙 목사(벨기에 에노만교회)가 3월 11일, 핀란드 왕의 왕교회 주일예배에 초청받아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엡 4:13)을 설교했다.

담임 빅토 코르니코브 목사와 성도들은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명쾌하면서도 깊은 영적 말씀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며 현실을 바라보는 육적인 신앙생활이었음을 회개하고 더 힘차게 달려갈 것

을 다짐했으며, 만민과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이 설교는 18일(주일), 발틱 지역 기독교방송 'TBN 발티아'와 러시아어권 기독교방송 'BEPA 24'를 통해 방송되었다.

한편, 이번 선교는 '2010 이재록 목사 초청 에스토니아 연합성회' 시 참석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체험한 바 있고, 지난해에는 우리 교회를 직접 방문했던 'TBN 발티아' 방송국 사장 막심 토마쑈프 목사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 인도 편자브 주에서도 세미나 통해 활발한 복음 전파

'GCN TV 힌디어 시청자 세미나 및 목회자 세미나'가 인도 델리에 이어 편자브 주의 3개 도시에서도 열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김상휘 목사(인도 델리만민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흠으로 만드신 이유'(창 2:7)와 '인간 경작'(창 3:23)을 주제로, 주님의 마음을 담은 참 자녀가 되어야 할 것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권능 사역에 대해 증거하였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희한한 능의 역사가 오늘날도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나타남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을 위해 손수건 기도를 해 주었다. 그 결과, 6개월 동안 지팡이를 의지해 걸어야 했던 시크교도가 즉시 지팡이 없이 걷게 되는 등 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간증하였다. 이에 목회자들은 체계적으로 성결의 복음을 배우고 싶다는 매달 세미나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십자가에 담긴 의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아무 죄없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 1.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고대 제국의 십자가 처형은 흉악범이나 반역자와 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범인에게 내리지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은 ‘죄의 삯은 사망’ (롬 6:23)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군가가 죄인 된 인류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려면 자신이 대신 저주의 값을 치러야 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셨습니다(신 21:22~23 ; 갈 3:13).

유대인의 사형법에는 돌로 쳐 죽이는 방법만 있었기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아 로마의 십자가 처형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하셨지요. 이러한 사실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예표를 보여 주셨습니다(민 21:4~9).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불뿔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이 물려 죽게 됩니다. 이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하시며, 뱀에 물린 자가 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 하시지요. 여기서 뱀은 원수 마귀 사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4~15)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무 죄없이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지요. 곧 원수 마귀 사단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게 했으므로 스스로 영계의 법을 어겼고,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없으시니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원수 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가 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뜻이며, 결국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가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며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 2.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대신 피를 흘려 그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히 9:12, 22). 이 희생의 크기는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쓰인 채찍은 땅은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여러 가닥으로 이뤄졌습니다. 채찍 속에는 쇠구슬, 날카로운 뿔조각, 쇠조각 등이 박혀 있지요. 군병은 죄수의 옷을 벗기고 양손을 결박한 뒤 어

깨부터 등, 엉덩이, 정강이, 다리와 손까지 때립니다. 그것도 여러 명이 번갈아가며 채찍으로 가책을 하는데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지요. 한번 맞으면 깊은 타박상과 함께 살이 벌어지거나 찢겨져 나갑니다. 피부 밑의 골격 근육까지 찢어지면 살은 힘없이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되지요.

이렇게 채찍을 맞은 죄수는 많은 피를 흘렸기에 혈압이 떨어져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기절합니다. 또한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 심한 목마름을 느끼게 되지요. 죄수는 이 상태에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갑니다. 보통 나무 십자가는 길이가 2미터, 무게는 40킬로그램가량 되어 일반인도 지고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되어 정신마저 흐릿한 상태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세 번이나 쓰러지셨다고 전해지지요.

처형장에 도착하면 죄수를 십자가에 고정하기 위해서 손목과 발등에 못을 박는데, 이때 사용된 못은 굽직한 큰 못으로 크기가 약 13센티에서 18센티 정도 됩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몸무게 때문에 손바닥이 찢어져 십자가에서 떨어질 수 있기에 손목 정중앙에 못을 박았지요. 그 부분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므로 여기에 못을 박으면 신경이 파괴되어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발에는 두 발을 위아래로 겹쳐서 발등 중앙 둘째와 셋째 뼈 사이에 못을 박습니다. 이때도 신경은 완전히 파괴되지요.

이렇게 죄수를 고정 한 후에는 이 십자가를 땅에 수직으로 꽂는데, 이제부터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시작됩니다. 손발이 못 박힌 채 수직으로 매달려 있으면 먼저 팔이 늘어지고, 순서대로 모든 뼈가 어그러지지요. 양쪽 어깨는 탈골되고, 못에 박혀 죽은 팔과 어깨를 체중이 끌어내림으로 인해 숨을 들이쉬기가 어려워집니다.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 혈액은 이산화탄소 과잉으로 산성이 증가되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지요. 연구에 따르면, 십자가 처형의 희생자들은 못 박힌 상태에서 대략 천 번 정도 기절했다 깨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를 늘 마음에 새기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 3. 십자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받으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나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인 된 인생들을 구원할 길은 비밀한 가운데 만세 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서 원수 마귀 사단은 상상조차 못한 방법이 있었습니다(고전 2:6~8).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공의를 초월하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토록 처참한 죽음에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요일 4:10).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낀 사람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고백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믿음으로 주의 뜻을 좇아 살아갑니다. 주의 제자들도 그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며,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영적 성장의 장애물 '변개함'을 신속히 벗어내려면?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면 변개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지라 …”(신 7:9)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민 23:19)  
 “...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약 1:17)

‘변개함’이란 무엇일까? 자기의 사사로움을 좇아 진리 안에서 처음 정한 바를 바꾸는 것이다.  
 설령 선천적으로 끈기도 없고, 쉽게 싫증도 내고, 이랬다저랬다 포기도 잘하는 습성을 가졌다 해도  
 열심히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노력해가면 얼마든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영적 성장의 큰 장애물인 변개함을 벗어내기 위한 세 가지 TIP(팁)을 소개한다.

## TIP1 무엇이든 선불리, 함부로, 쉽게, 분위기나 감정에 휩쓸려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분위기나 감정에 휩쓸려서 순간적인 느낌과 기분 탓에 쉽게 말해 놓고 지키지 못하여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평소 말이 많거나 농담을 잘한다면, 혹시 선불리 함부로 쉽게 말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봄으로 스스로 말하고 지키지 못하는 변개할 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마음에 변개함이 많은 사람은 자신과의 약속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쉽게 변경하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도 수시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편 15편 4절에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

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했고, 민수기 30장 2절에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했으니 하나님 앞에 입으로 낸 말이나 마음에 정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말씀한 대로, 범사에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을 내거나 결정하는 등 스스로 성령의 주관을 받아가는 훈련을 해서 입술의 말에 실수가 없기를 바란다.

## TIP2 작은 것부터 변함없이 실천하는 행함으로 능력을 쌓아간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필요하다. 즉 실천이라는 행함을 통해 자신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변개함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다. 내 안에 변개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변개하기도 하지만, 늘 변개함으로 그 속성이 오히려 내 안에 자꾸 쌓이게 된다.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행해감으로 변개하지 않는 능력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성경 1장도 읽지 않던 사람이 30장을 읽겠다고 벽찬 목표를 세우고 시작한다면, 이는 이미 변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시작한 것과 다름없다. 일단 성경 1장을

읽겠다는 목표로 시작함으로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 나중에는 30장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마음에 죄성을 버림에 있어서도 발견된 죄성을 붙잡고 온전히 버릴 때까지 기도하며 실천해가야 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가 말아버리고 또다시 생각나면 하기를 반복하니 죄성이 버려지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변개함을 마음에서 벗어내려면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변개없이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그만큼 절제의 능력이 생기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될 뿐 아니라 그 능력은 결국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다.

## TIP3 중도에 낙망하여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다가 중도에 이행하지 못했을 때 아예 그 일을 포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마음의 성결을 이루가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나는 안되나 보다.’ 하고 낙망하고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다.

만일 마라톤의 금메달리스트가 중도에 포기한다면 그는 완주할 수도 없고 또다시 금메달을 딸 수도 없다. 이처럼 천국 가는 길도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 있고 완주할 수 있다. 결국 변개함이 있는 ‘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낙망하여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포기하는 습성을 버려야 한다.

변개함이라는 것은 때로는 결단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참을성이 부족한 것으로, 배신하는 것으로, 간사한 것으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속성은 변개함이므로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처럼 사소한 것 하나라도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나무처럼 자라게 된다. 그러므로 내 주변이나 삶 속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변개함이라는 것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면 그것을 버려 나가고, 바꿔 나가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말씀했으니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어감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기를 바란다.



**3**  
주요프로그램 안내  
2018.3.25~3.31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주님의 십자가
- 믿음의 분량 6-10
- 십자가의 도 8-12
- 창세기 강해 48-53
- 요한일서 강해 28-34
- 요한계시록 강해 56-62

**GCN TV설교**

- 육과 영 9-13 (이수진 목사)
- 하나님의 동역자 (이미영 목사)
-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67 (이희선 목사)
- 율기 강해 46 (신동초 목사)
- MIS 강의 42 (정규영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옛날 옛적에 (시즌2) 4
- 내 마음의 찬양 36
- 일곱달콩 어여쁜 울동 86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6

**신규 프로그램**

- 권능 1
- 배워보아요 1
- 기초중국어 니하오마 1

전국 어디서나 **allev tv 882번**

세계 어디서나 **Roku TV**

# “성결의 복음을 만나 평안과 기쁨, 천국 소망이 가득합니다”



따찌아나 뵤라말라 자매  
(23세, 몰도바만민교회, 뒷줄 오른쪽)

저는 주님을 영접한 뒤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하지 못하니 주님에 대한 사랑과 뜨거움이 식고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녔지요. 시간이 갈수록 신앙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아졌고, 알고 있는 성경 말씀조차 행하지 못하니 무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목회자들도 가르치는 것과 실제 행함이 너무 다른 것을 보며 실망스러웠고, 심지어 아버지는 목회자들의 그런 모습에 실망하여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

셨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말다툼과 싸움까지 일어나니 저 또한 자주 화를 내며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지요. 결국 저는 주일 오전예배만 간신히 참석하였습니다. 그 뒤 잦은 복통과 만성 두통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치료도 받아 보았지만 소용없었지요. 햇볕을 쬐면 머리가 아팠기에 어두운 방에서 생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는 사람인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왜 제대로 기도를 못하고, 내 주변에는 항상 문제

들만 있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으니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어느 날,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막시 추바추크 형제가 이재록 목사님의 책자와 설교를 추천해 주며, 이 세상에는 죄를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사는 목회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형제는 저와 어머니를 자신이 다니는 몰도바만민교회 성탄행사에 초청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교회에 가보신 어머니는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책을 읽은 뒤 제게도 꼭 읽어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 책을 읽으며 저는 마음에 기쁨과 뜨거움이 동시에 임하는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토록 해결되지 않던 질문들, ‘인생들이 죄 지을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인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을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등 많은 의문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의심하고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눈물로 참회하였지요. 마치 제 삶에 흠어져 있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그토록 고민하던

저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계획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을 반복해 읽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기도회에도 매일 참석하게 되었지요. 이재록 목사님의 보물 같은 말씀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창세기 강해 설교’였지요. 그 외 『천국』과 『지옥』,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 등 다양한 책자와 설교 말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성결한 자녀를 원하시며, 저도 그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달아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는 소망도 갖게 되었지요. 만성 두통과 복통에서도 완전히 해방되었으며 아동주일학교 교사와 무용팀, 그리고 구역모임에서 리더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요. 이처럼 저를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성결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시는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 “당회장님의 기도로 복막염을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지난 2월 8일(목), 갑작스럽게 아랫배에 통증이 시작되더니 멈추질 않고, 복부는 가스가 찬 것처럼 금세 부풀어 올랐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다가 12일(월) 아침,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는 “급성맹장염으로 왼쪽이 염증으로 심하게 부어있고 오른쪽 골반을 타고 수분이 형성되어 고여 있는 것으로 보아 천공(구멍)이 생겨 복막염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바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순간순간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진저리를 칠 정도였지요. 저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했던 마음이 분주한 삶 속에 어느새 변화하였음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권능으로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변화되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무안단물(출 15:25)을 계속 마시고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으며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복부 CT 촬영

◀ 기도받기 전 : 충수돌기가 천공되어 주변에 고름 주머니가 형성되어 있음.

드디어 14일(수), 저는 휠체어에 실려 설 만남을 위해 사택에 도착한 후 당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전체기도를 받는데 온몸에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뒤 통증으로 인해 올릴 수 없던 오른쪽 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여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었고 식욕도 되살아났지요. 그런데 저녁이 되자 강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던 저는 떠올려 주시는 대로 크고 작은 말과 행동들까지 회개하면서 제 신앙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였습니다.

다음날 새벽녘에야 겨우 잠들었는데 오전 8시경 눈이 떠졌습니다. 어쩐지 몸이 말짱한 느낌이 들어 조심스럽



김명랑 집사 (47세, 2대대 16교구, 맨 왼쪽)

게 배를 만져보았더니 통증이 없었지요. 그때 마침 시아버님이 울먹거리시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꿈에 당회장님께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셔서 둘째 며느리가 많이 아프다고 말씀드렸더니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저의 통증이 사라진 시각과 시아버님이 꿈을 꾸셨다는 시각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뒤 제 몸은 빠르게 회복하여 온전해졌으며 이제는 건강합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틀 후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성도들의 설 만남이 있기에 저는 믿음으로 치료받아 영광 돌리고 싶었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330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41)881-7000, 010-3030-7025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62)513-2455, 010-8888-072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920-4512, 010-3343-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3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